



박용규 목사의 천국 지옥 간증 요약글

www.DivineRevelations.info/KOREAN

1. 죽음에 이르는 병

나의 아버지는 황해도 해주 부자였다. 전 재산을 팔아 팔아 1.4후퇴 때 월남하였으나, 그런데 도중에 인천 모 고등학교 체육선생이 강도로 돌변하여 아버지 품에 든 돈을 빼앗으려고 아버지를 죽였다. 그 때부터 어머니와 나는 고아원에서 생활하며 인생의 가시밭길을 걸어야 했다.

그 후 목사가 되어 성남 제일교회를 세웠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라는 책이 수십만권이 팔려 그 수입으로 성남에 중, 고등학교 셋을 설립하였으며, 교회도 5,000명 교세로 부흥시켰다.

그 때 박정희 대통령은 문교부 장관으로 추천하였고 신민당 김영삼 총재는 성남에서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할 정도였다. 예수님은 교만할 대로 교만한 나에게 저주의 채찍을 내리치셨다.

그래서 1987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분에 고혈압으로 쓰러진 후부터 구운 오징어 같이 뒤틀리는 저주받은 몸이 되었다. 영동 세브란스에서 살 가망이 없다는 판정을 받고 10일만에 퇴원하여 가족들의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을 주면서도 나는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하나님은 나의 교만이 그렇게도 미웠는가 보다. 그러기에 눈뜨고는 볼 수 없는 흉측한 모습으로 죽어갔던 것이다.

1987년 12월 30일 10시경 내 몸이 얼음장같이 차고 심장의 고동소리가 멈추자 아이들은 임종 찬송을 불렀고 아들은 졸도하였을 때 두 천사의 방문을 받았다.

2. 두 천사를 따라 은하수 저 건너편으로 가다

병들어 꼬부라진 내게 연한 녹두빛 통뿔으로 손과 발까지 가리고 나타난 두 천사 중 오른 편에 있는 천사는 주님 곁에서 심부름하는 천사라고 하고, 왼쪽 천사는 내가 태어날 때 부터 날 보호한 천사라고 한다. 나를 찾아온 두 천사의 눈에서 나오는 빛이 나를 압도했다.

나를 찾아온 목적을 물어보니까 주님의 부르심이 계시기 때문인데, "당신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가서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후에 당신이 본 것을 세상에 알려 지옥 가는 숫자를 줄이고 천국 가는 사람을 더 많이 하시려는 예수님의 계획 때문이다."고 했다.

나는 '병든 몸으로는 갈 수 없으니 고쳐서 데리고 가라고 해도 들은 체도 않고 내 옷을 벗기고 천국에서 가져온 흰 실크같은 통 옷을 입혔다.

그 천국 옷을 입자 내 몸이 공중에 뜨려고 하니 두 천사가 나의 양쪽 팔을 잡는 순간 번개같이 하늘로 솟아올랐다. 한 2분 정도 올라가니까 지구가 축구공같이 작게 보였다. 그 때 이미 우리는 북극에 도달했다.

그곳에서부터 천국까지 황금길이 곧게 깔려 있었다. 두 천사는 나를 그 길 위에 내려놓자 저절로 천국을 향해간다. 앞을 보니까 수많은 흰 옷 입은 무리가 가고 있기에 '저들은 누구입니까?'라고 물었더니,

"그들은 땅에서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님 잘 믿고 성령님 잘 모시고 충성하다가 죽은 성도들로서 육체를 벗고 천국으로 가는 영혼들이다."라고 했다.

나는 '천국이 얼마나 멀리 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은하수 건너편에 있는데 여기서 하룻길 걸린다.'고 했다. 수많은 별들을 지나가는데 죽은 별도 있고 새로 생긴 별도 있었다. 천국 별이 눈에 들어왔을 때 빛은 햇빛과는 달리 거룩하고 신비로운 빛이었다.

천사는 '찬송을 불러야 천국 문이 열린다.'하면서 찬송을 가르쳐 주기에 3절까지 부를 때 금새 천국 남쪽 문을 통과하였다.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먼길 오느라고 수고 많이 했구나!"라고 땅이 울린 듯 주의 음성이 들렸다. 음성만 들리고 주님은 보이지 않았다.

3. 예수님께서 내게 물으신 다섯 가지 질문

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자마자 꿇어 엎드려 통곡을 하며 인사를 올렸다. "주님 꿈에도 그리운 예수님 이 죄인이 왔습니다. 죄 값으로 저주받아 병든 몸이 되어 왔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너무나 통곡하니 옆에 서있던 천사가 "울음 뚫"하며 소리쳐 울음을 그쳤다.

그리고 나서 나는 주님께 '주님 모습 한 번만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의 사람 박용규 목사야, 너는 여기서 하나님과 나 예수와 보좌를 보려하지 마라.

네가 다시 땅에 내려가서 일 많이 하고 구원받아 올라오면 그때는 나를 볼 수 있을 것이다."고 하셨다. 그리고는 주님이 내게 다섯 가지의 질문을 하셨다.①너는 땅에서 성경을 얼마나 읽었느냐?

②너는 헌금을 얼마나 했느냐?

③너는 땅에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

④너는 십일조를 어떻게 했느냐?

⑤너는 기도 생활을 얼마나 하였느냐?

이렇게 다섯가지를 물으신 후에 "너는 네 가지는 잘했으나 큰 교회 되고 유명한 목사 되어 바쁘다는 핑계로 기도를 게을리 하였구나!!"하시며 책망하셨다. 그러나 네가지는 칭찬을 들었다.

나는 주님이 가르쳐주시기 전에는 내가 세례를 준 성도가 몇 명인지 알지 못했다. 주님은 1,026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말씀하셨다. 후에 당회록을 보니 주님이 말씀하신대로 1026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주님은 내게 말씀하시기를 "두 천사의 안내를 받아 천국과 지옥을 마음껏 구경을 한 후에 땅에 내려가서 네가 본대로 열심히 전하라" 하셨다.

그리고 구원받아 천국에 올 때까지 양로원을 만들어 목회자 50명을 잘 보살피면 현재보다 20배의 상을 주신다고 하셨다.

4. 지옥에서 만난 영혼들!

지옥의 색깔은 붉은 색과 검은 색뿐이다. 천사는 "지옥 가는 수와 천국 가는 수는 일 천대 일이라"고 한다. 천국에 겨우 하나가면 지옥은 천 명이 간다는 것이다. 그러니 얼마나 교회가 제 사명을 못하면 그렇게 많은 영혼들이 지옥에 갈까?

천사가 말하기를 "지옥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은 100% 지옥에 들어가며, 교회를 다니기는 하였으나 형식적으로 다닌 자, 외식으로 믿는 자, 탐욕을 좇아 산 자들도 지옥에 간다"고 한다.

(1)유황 불 못에서 고생하는 영혼들

천사가 "지옥의 유황 불 못은 세상의 도시처럼 수천 수만 개나 된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다. 이 곳에 온 영혼들은 땅에서 성경 말씀을 믿지 않고, 교회와 교인들을 업신여기며 조롱하고 핍박하던 자들이며,

또 세상의 부귀와 권세를 위해 신앙을 저버리고 주일을 범하는 등 교회 안에서 분열과 분쟁을 조작하고 교회를 자기 세력을 행사하는 장소로 삼아 싸움을 일삼았던 자들이 온다."고했다.

그러니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간다는 생각을 버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겠다.(마7:21) 아버지의 뜻은 예수님을 진실로 보고 믿어 영생을 얻는 것이다.(요6:40)

천사는 나에게 큰 소리로 "박 목사, 저기 유황 불 속에서 아우성치며 고통 당하는 영혼들 중에 본 적이 있거나 아는 자가 있는가 ?"하고 물었다. 그래서 자세히 보았더니 한국교회에서 이름 있던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이 많이 있었다.

그들은 "신사참배(일본 태양귀신)를 강요하고 교권과 명예를 위해 정상적인 신앙을 떠나 자기 유익을 구하고 교회와 총회에서 싸움과 분열을 일으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찢고 부순 자들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유황 불 못에 왔다."고 천사는 말한다.

큰 교회의 교만한 목사, 교만한 부자 장로, 스스로 잘난 권사 집사들이여, 유황 불 못을 알려거든 부엌에서 가스렌지 불 위에 얼굴을 올려놓아 보면 그 고통을 알 것이다.

(2)벌레들에게 고통 당하는 영혼들

두 번째 인상 깊은 곳은 벌레 지옥이다. 그곳 영혼들은 벌거벗은 몸으로 벌레들에게 모질게 고통을 당하였는데 천사가 "이들은 땅에 살면서 갇은 더러운 일과 추한 일들을 한 자들로서 음행, 불의, 추악, 욕설, 거짓, 부정이 가득하여 정욕대로 산 자들이다."고 했다.

(3)갇은 도구로 고통 당하는 영혼들

시뻘겋게 달군 쇠 송곳으로 배꼽을 깊숙이 찌셨다. 천사는 "여기서 고통 당하는 영혼들은 땅에서 육체를 쾌락의 도구로만 사용했으며, 낙태와 살인을 자행하였고 또 그 낙태를 집도한 의사들과 낙태를 허락한 가족들이다."고했다.

또 입에 칼을 물고 있는 영혼들이 쇠방망이를 든 괴물에게 두들겨 맞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입으로 교회와 주의 종들과 교인들을 욕한 자들이다."고했다.

온 몸을 무우 자르듯이 칼로 난자를 당하는 영혼들에 대해서는 "이들은 남을 구타하고 폭행하며 폭력을 써서 돈을 빼앗고 목숨을 빼앗는 천인공노할 죄를 지은 영혼들이다."고 한다.

목사가 지옥에 갈 정도라면 평신도들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지옥은 불신자들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가짜로 믿으면 불신자와 다름없다. 주일 성수 못한 교인, 구제, 봉사, 전도 안한 교인이나 교회 지도자들은 회개해야 지옥을 면할 것이다.

부하 직원들의 노동력을 착취한 부자들은 펄펄 끓는 더러운 물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권력을 이용하여 남을 희생시킨 독재자들의 영혼은 높은 곳에서 쉬지 않고 뛰어 내리며 죽음을 맛본다.

기독교 교인들을 많이 죽인 대원군과 조 대비는 유황 불 못 중앙에서 물! 물! 물! 하며 소리치는 것도 보았다. 그리고 일본의 전쟁 미치광이 이등박문과 중공의 모택동, 소련의 레닌과 스탈린, 독일의 히틀러, 우리나라의 역대 왕들도 지옥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 (계 21:1,계 22:12)